

JULY 2016



GENTLEMEN'S QUARTERLY

COVER STORY
**BAD BOY
BLUES**

악동들의 악동,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와의 위악적인 인터뷰

DRINK
로제 와인에 대해 새로 밝히고 싶은 몇몇 이야기

알파고, 그 후

개발자 데이비드 실버, 바둑기사 판후이, 딥마인드 설립자 데미스 허사비스, 그리고 인류 대표 이세돌을 아주 가까이서 보았다

**21ST
CENTURY
TRAVEL**

파도와 모래에 등 떠밀려 고른 수영복 5/ 방종과 분리를 위한 최적의 호텔 4/ 이 밤을 위해 비밀처럼 간직했던 음악과 술 9/ 생명 유지 장치라 불러 마땅한 조난용 시계 5/ 표지만 봐도 엉덩이가 들썩이는 시티 가이드 북 9



INTERVIEW

夏夏夏

여자친구 여섯 멤버의 하하하, 한여름 같은 웃음소리

LIST

을지로 신도사에서 장장 17시간 동안 27명의 DJ가 플레이한 211곡

CRITIQUES

연예인의, 연예인에 의한, 연예인을 위한, 연예인밖에 모르는 나라

SPORTS

파크팩터를 아시나요?

MOTORING

재규어 최초의 SUV 이런 비율은 생전 처음 보았다

마세라티 르반테를 타고 이탈리아 브레시아의 호숫가를 달렸다

#hotel

문을 열면 바다와 해변이 온전히
내 거가 되는 프라이빗 비치 호텔 4.
에디터/박나나



#goldeneyeresort #oracabessabay #ianfleming



#makakizi #aegeansea



#capdantibesbeachhotel #lespecheurs #cotedazur



#makakizi #fireplace



#songsaa #kohrong #allinclusiveresort



#makakizi #turkbuku

GOLDENEYE JAMAICA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 이안 플레밍이 <007 시리즈>를 집필한 별장을 확장해서 만든 호텔이다. 특히 로우키 해변을 따라 늘어선 해변 코타지에 목으면 우렁찬 파도 소리를 들으며 잠들 수 있다. **CAP D'ANTIBES BEACH HOTEL** CAP D'ANTIBES 앙티브에서 유일하게 프라이빗 비치를 가진 호텔. 일 년 내내 태닝할 수 있는 축복받은 날씨와 콩고물처럼 고운 모래사장이야말로 이곳에 한 번 머물면 떠날 수 없는 이유다. **SONG SAA PRIVATE ISLAND RESORT** CAMBODIA 크메르어로 따뜻한 마음이라는 뜻의 송 사 섬. 마음만 먹으면 그곳의 모든 게 곧 내 것이 되는, 비밀스럽고도 신기한 리조트다. 아무도 없는 50일 화이트 샌드 비치에서의 피크닉은 호사 중의 호사. 게다가 모든 부대 시설이 무료다! **MAKAKIZI BODRUM** TURKEY 터키의 생 트로페, 보드룸 해안가에 있는 마카키지 호텔엔 모래를 안 묻히고 바다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비치 클럽이 있다. 해질녘엔 비치의 모닥불과 노을로 붉게 변한 에게 해의 풍광을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